



ACTS 神學과 宣敎

## 칼빈 인식론의 신학적 접근

원 종 천(역사신학)



#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 I. 서론

하나님의 문화명령 이후 인간은 다양한 문화 활동에 매진해 왔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능과 능력을 주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하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정복자가 되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은 언약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어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의 상태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문화명령은 여전히 효력이 있었지만, 인간의 마음에 자리를 잡은 죄성은 문화명령의 수행을 그릇된 방향으로 기울게 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영광으로 대체되었고 문화명령의 수행으로 나타난 열매들은 온갖 오류와 문제를 내포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수호자는 그들의 죄와 오류의 잔재에도 불구하고 문화명령의 목적을 재인식하고 그것을 온전히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반면, 언약의 파괴자는 여전히 그것을 알지 못하고 무지에서 나오는 하나님과의 적대관계 하에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반항적 문화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불신자들의 이성과 이해의 능력은 그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에게 주신 은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항하게 된 것이다.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반은총이 문화명령의 지속을 위하여 비추어졌으나, 언약을 깨뜨린 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반항은 그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다. 타락 전 인간 인식의 구조는 무엇이고 그것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불신자들과 믿는자들 사이의 인식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러한 불신자들의 인식을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칼빈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개념을 확실하게 고수했다. 창조론에 대한 칼빈의 개념은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주권 개념을 고취시켰고 특히 인간의 사상과 지식에 있어서 그것은 더욱 강조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칼빈은 인문주의자로서 세상의 사상과 지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인문주의 배경에서 나온 고전문학과 고전언어 전통의 훈련은 그의 기독교적 사고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도 그를 세속적 지식과의 관계로부터 단절시킬 수 없었다. 성경을 통하여 그릇된 중세전통과의 단절을 추구하는 그의 사고와 그를 성경의 탁월한 주석가로 세운 인문주의 배경은 칼빈으로 하여금 한편으로는 성경적 개신교 인식론의 기반을 형성하게 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문주의 영향으로 말미암은 일면의 혼란을 야기 시킨 부분도 엿보인다. 본 논문은 개신교 인식론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칼빈의 인식론을 자연과학 내용을 중심으로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 II. 신론적 접근

먼저 우리는 칼빈의 하나님 중심적 인식론을 그의 과학에 대한 견해를 중심으로 설명해 보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칼빈이 그의 창조론과 섭리론을 바탕으로 과학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성경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이것은 특히 중세의 잘못된 인식론에 대한 반발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볼 것이다.

칼빈의 인식론은 그의 신론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즉, 창조주와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칼빈의 명백한 이해는 그의 인식론의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또한 통치자이시라면, 당연히 인간은 이 세상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얻기 위하여 그 분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창조와 통치 사상은 칼빈으로 하여금 어떤 인식론의 영역도 하나님의 지식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개념을 분명하게 했다. 이것은 인간지식의 어느 부분에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분리되어있는 독립적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간이 자연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의 숨막히는 증거를 필연적으로 직면한다고 칼빈은 말한다. 그러므로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이해를 위한 노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자연을 이해하려는 인간의 노력에 대한 칼빈의 태도는 반드시 자연과학의 전문적 연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더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인간이 자연에 비쳐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자연을 꼭 탐구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전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심지어 “무지한 자들도… 눈을 열고 그것들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칼빈은 말한다.<sup>1</sup>

칼빈은 자연의 탐구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다룬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사역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한다. 이것을 통하여 인간은 참 기쁨을 발견한다. 인간이 자연을 직면하고 연구하고 이해할 때에 자연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2</sup>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자연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유지하시고 운행하시는 우주의 법칙에 견고하게 서있다는 것이다. 칼빈의 창조론은 하나님 창조의 모든 객체들이 하나님의 법의 지배하에 놓여있음을 분명히 한다. 이것은 창조의 존재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지 않은 어떤 영역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sup>3</sup> 그러므로 자연과학의 물리법칙은 자연의 비밀로 인도하는 길이요, 그 자연의 비밀은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sup>4</sup>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세심한 통치는 칼빈의 섭리

1.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trans. F. L.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n.d.), 1:5:2.

2. 칼빈은 이렇게 말한다. “We must… admit in God’s individual works… that God’s powers are actually represented as in a painting. Thereby the whole of mankind is invited and attracted to recognition of Him, and from this to true and complete happiness.” *Inst.* 1:5:10.

3. Robert Knudsen, “Calvinism as a Cultural Force,” *John Calvin: His Influence in the Western World* (Grand Rapids: Zondervan, 1982), p.18.

4. William Reid, *Christianity and Scholarship* (Nutley, N.J.: Craig Press, 1966), p.29.

개념에 잘 표현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후에 당신의 창조물을 방관하지 않으신다. 우주의 모든 사건들뿐만이 아니고 인간 삶의 모든 영역과 사상까지도 주관하시며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에 대하여 주권적 돌봄을 행사하시는 것이다. 비록 칼빈은 운명론으로 인도될 수 있는 결정론의 개념에 대하여 경계를 하면서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연에 의하여 발생할 수는 없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말하면서도 이 부분에서 칼빈은 그 통치가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사랑의 돌봄이란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sup>5</sup> 그러므로 자연법칙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사랑의 돌봄과 유지의 표현으로서의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칼빈의 이러한 자연과학에 대한 태도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과학자를 경멸하는 부정적 태도에 대한 경계에서 잘 나타난다.<sup>6</sup> 칼빈은 소위 일컫는 신령주의자들이 과학의 지식을 가치있게 인식하지 않을 때에 그들을 “미치광이”라고 부르면서 이러한 입장을 비판했다.<sup>7</sup> 호이카스(R. Hooykaas)는 칼빈이 과학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연구라고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음에 동의한다. 과학이 인간을 단지 교만하게 만들 뿐이라는 개념에 칼빈은 반대했고, 오히려 과학은 하나님의 지식을 얻고 덕을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sup>8</sup>

칼빈의 방법론은 중세의 “자연”과 “은혜”의 이원론적 구조를 거부하는 것이다. 중세의 사상에 의하면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우주의 자연계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이해 없이 인간의 이성, 입각한 합리적인 분석에 의하여 정복되어지는 것이었다. 자연의 영역은 은혜

---

5. Inst. 1:6:14.

6. Inst. 2:2:15, 16.

7. John Calvin, *Calvin's Commentaries*, trans. THL Parker (Grand Rapids: Eerdmans, 1965), Commentary on 1Cor. 8:16.

8. 호이카스는 칼빈이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과학적 방법이 “견고한 경험주의 학문”의 방법론이었지 당시에 있었던 사색적 물리학의 방법론이 아니었음을 밝히고 있다. R. Hooykaas, *Religion and the Rise of Modern Science*(Grand Rapids: Eerdmans, 1972), p.106.

의 영역과는 구분되어 하층에 속하는 것으로 중세 아리스토텔레스적 스킨라주의의 합성 원칙에 의하면 이성만이 자연의 영역인 세상에 대한 온전한 이해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층에 속하는 은혜의 영역으로 간주되어지는 자연영역 위의 것에 대하여만 인간은 그 이해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야된다는 것이었다.<sup>9</sup>

칼빈은 하나님의 참 지혜인 자연의 법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알 때에만 제대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10</sup> 이것은 중세의 구조에서 나타난 “자연” 영역이 칼빈의 사상에서는 자리잡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칼빈의 입장에 의하면 지식은, 그것이 “은혜”의 영역이던 “자연”의 영역이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지식에 기초하지 않고는 참 지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sup>11</sup> 심지어 칼빈은 과학이 거룩함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과학이 아니라고 주장한다.<sup>12</sup> 칼빈은 모든 학문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주장한다.<sup>13</sup>

칼빈의 자연에 대한 신론적 이해는 중세의 자연과 은혜의 어원론적 구조의 붕괴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중세 말에 이미 “자연”과 “은혜”의 영역은 더 이상 조화를 이룰 수 없음이 드러났다. 자연 영역을 위하여 인도적 역할을 하던 이성이 은혜의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이다.<sup>14</sup> 특히 16세기에 상승되고 있던 과학 사상가들의 불만으로 인하여 중세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우주의 구조는 그 호소력을 잃어가

9. Reid, p.27.

10. Calvin, *Comm.*, Isa.33:6; 1Cor.4:19,20.

11.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 . vain is that man in whom the knowledge of god is not, what knowledge soever he has besides. Yea, the science and faculties themselves which in themselves are good, yet are made vain in us, if they lack this foundation.” Calvin, *Comm.* Rom.3:11.

12. Calvin, *Comm.* 1Tim. 6:20.

13. “Without Christ, science in every department are vain, and the man who knows not God is vain, though he should be conversant with every branch of learning.” Calvin, *Comm.* 1Cor. 1:20.

14. Herman Dooyeweerd, *Roots of Western Culture* (Toronto: Wedge Publishing Foundation, 1979), p.137.

고 있었다. 전통적인 아리스토텔레스적 설명은 점차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기술 과학적 발견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해석을 제공해 줄 수 없었던 것이다.<sup>15</sup>

반면에 은혜 영역은 신비주의 형태로 자연의 영역을 탈피하려고 했다. 자연 영역은 죄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고, 초자연적 은혜의 신비적 체험은 금욕주의로의 필연적 탈출을 시도하게 했다. “은혜의 기독교적 동기”와 “자연의 헬라 종교적 동기”는 서로 충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sup>16</sup>

그 결과 두 가지 선택의 길이 나타나게 되었다. 자연과 은혜의 영역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뜻과 통치하에 있다는 과격한 창조론과 하나님의 섭리론을 가지고있는 성경적 주제를 따르거나, 아니면 은혜의 영역까지도 이성이 장악하는 인간이성 중심의 이론을 따르든지 하는 것이었다. 칼빈은 전자를 따랐다.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있는 칼빈에게 모든 학문의 목적과 결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창조에 펼쳐진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함으로 인간의 지혜는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오는 것이다. 칼빈의 창조론과 섭리론에 입각한 신론적 접근 방법은 근본적으로 과학지식을 울

15. 과학사에서 역사적인 기점을 남긴만한 업적이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출판한 책을 통하여 나타났다. 그는 지구 중심적인 전통적인 우주관을 무너뜨렸다. 우주는 공간에 무한적으로 펼쳐져 있고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며 거대하고 망망한 우주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있는 하나의 작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중세시대에 사람들은 지구가 중심인 완전한 우주 안에 살고 있다고 믿었다. 아홉 개의 천체가 지구를 돌고 있고 천국은 별의 위에 있으며 지옥은 지구의 중심에 있다고 믿었다. Reid, p.58.

16. 도이베르트는 자연과 은혜의 분열은 14세기 윌리암 옥감(1280-1349)에 의하여 이미 외쳐졌다고 말한다. 그것은 은혜의 기독교적 동기와 자연의 헬라 종교적 동기가 성경의 창조론에 대하여 지탱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성의 신성화는 십계명이 계시를 떠나서 이성의 자연적 조명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옥감은 자연과 은혜 영역 사이의 어떤 접촉도 거부했다. 그러나 자연과 은혜의 접촉을 완전히 버리기 위한 과다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옥감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우발적인 뜻이라는 지나친 발언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자연의 영역에서 크리스찬은 맹목적으로 순종해야하며, 초자연적 은혜의 진리 영역에서는 의심의 여지없이 교회의 교리를 받아야만 한다고 옥감은 주장했던 것이다. Dooyeweerd, *Roots of Western Culture*, pp.137-138.

바른 틀 위에 올려놓았다고 평가한다. 이 점에서 칼빈의 인식론은 자연과 은혜의 중세 스콜라주의적 이중구조에 대한 성경적 승리였던 것이다.

### III. 인문적 접근

지금까지 우리는 창조론과 섭리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사상을 중심으로한 신론적 관점으로 칼빈의 인식론을 보았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는 인식 과정에서 인간에게 부여된 인식 기능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칼빈이 생각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칼빈의 인간론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인간의 본유적 신적 감각으로부터 출발한다. 이것이 인간의 종교적 의식이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그의 안에 있으므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워버리려는 노력은 인간으로 하여금 단지 우상숭배라는 것으로 대처하는 결과를 낳게 했을 뿐이다. 칼빈은 우상숭배가 인간의 하나님 존재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본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식이 없다면 우상숭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sup>17</sup>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칼빈은 말한다. 이 권세는 아담에게 뿐만이 아니고 아담 안에 속해있는 모든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정의, 선의 특출한 종자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옛날 사람들에 의하여 당연히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불리우는 것이다.”<sup>18</sup> 이러한 종교적 의식과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은 하나님의 창조에 펼쳐진 하나님의 지혜를 탐구하기 위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것임을 칼빈은 주장한다. 이 준비된 조건하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17. *Inst.* 1:31-3.

18. *Comm.* Gen. 1:26.



하나님에게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인간에게 타락이 왔다. 타락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과연 칼빈이 위에서 말한 내용들이 도대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세상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지식에 대하여 불신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인가?

칼빈은 불신자들의 인문과 과학의 학문적 활동에 대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한다. 칼빈은 천문학, 철학, 의학 등의 발전이 불신자들로부터 온 과거 역사를 상기 시키면서 크리스찬들이 문화발전을 위하여 이교도들에게 많은 빛을 졌다고 생각한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카인의 후손들이 비록 거둬나지는 않았을 망정 상당한 은사들이 주어졌다. 그것은 과거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 주듯이 하나님의 빛이 불신 국가들에게 폭넓게 비쳐졌던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sup>19</sup>

이것은 타락 후에도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칼빈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학적 탐구와 물질문명의 진보가 타락 후에도 하나님의 문화명령이 입각하여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타락 후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비록 인간이 타락했고 하나님의 형상이 부서졌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칼빈은 주장하는 것이다.<sup>20</sup>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라고 인간들을 초청하는 것이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세상의 변형은 하나님 창조의 근본적인 목적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칼빈은 주장한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한 당신의 근본적인 목적이 보존되었을 뿐만 아니고 타락한 인간

---

19. *Comm. Gen.* 4:20.

20. *Comm. Gen.* 9:2.

도 하나님의 문화명령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이다.

칼빈은 타락과 죄의 심각성을 잘 인식한다. 칼빈은 원죄가 단순히 인간의 감각적인 부분에만 영향을 주었다는 이론을 반박한다. 타락은 인간의 한 부분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고 전체에 영향을 주었으며 인간 심령의 깊은 곳까지 침투해 들어갔음을 말한다. 온 인류에게 심어놓은 아담의 원죄는 인간 전체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렸고 뒤집어 놓았다는 것이다.<sup>21</sup>

그러나, 타락의 과격성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타락한 인간에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이성의 기능 때문이라는 것이다. 처음부터 인간을 동물로부터 구분한 것이 바로 이성이었고, 그 이성은 타락에도 불구하고 파괴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초자연적 은사”가 타락으로 파괴되었지만, 이성의 기능을 근본 요소로 가지고 있는 “자연적 은사”는 사라지지 않았음을 칼빈은 말한다.<sup>22</sup>

칼빈은 초자연적 은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지식이라고 정의하고, 그것은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거룩함과 의를 위한 열심” 등의 축복된 삶의 요소들을 제공한다고 말한다.<sup>23</sup> 타락 때에 인간은 이 초자연적 은사들을 상실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날 때에 비로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적 은사인 인간의 이성은 비록 부패하기는 했어도 파괴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sup>24</sup> 요한복음 1:5의 “빛”을 인간 이성의 불꽃의 잔재로 해석하면서 칼빈은 타락 후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

21.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For not only did a lower appetite reduce him, but unspeakable impiety occupied the very citadel of his mind, and pride penetrated to the depths of his heart.” *Inst.* 2:1:9.

22. *Inst.* 2:2:12.

23. *Ibid.*

24.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Since . . . reason . . . by which man distinguishes between good and evil, and by which he understands and judges, is a natural gift, it could not be completely wiped out; but it was partly weakened and partly corrupted, so that its misshapen ruins appear.” *Ibid.*

는 인간의 이성적 활동을 보여주려고 애쓴다. 타락한 인간의 이성이 허망한 목적으로 진리를 찾을지언정, 불신자들의 마음에 있는 진리를 향한 사랑은 타락을 초월하여 움직이는 인간 이성의 본질적 특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칼빈은 주장한다.

칼빈은 한편으로는 타락한 이성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노력의 헛됨을 이해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위엿 것들(천상지식)”에 관련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지식에 대하여는 타락했을 지라도 이성의 능력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sup>25</sup> 그는 심지어 타락한 이성도 비록 그 능력이 위엿 것의 진리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을지언정 “위엿 것의 어떤 부분은 맛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아랫것(지상지식)”에 관하여는 인간의 타고난 본질에 의하여 보편적인 이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sup>26</sup> 결국 칼빈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지식을 “위엿 것(천상지식)”과 “아랫것(지상지식)”으로 나눈다. 그리고 이것은 “초자연적 은사”와 “자연적 은사”로 나누어지는 인간 기능의 구분과 구조적으로 흡사해 보이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칼빈은 타락한 이성의 본질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칼빈이 타락한 이성의 무익함을 말하기는 하지만, “아랫것”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어떤 결점도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타락한 이성의 허무함과 무익함은 “위엿 것”을 이해하는 것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물론 거듭나지 않은 이성이 그 능력을 발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이성의 활동은 믿는 자들보다도 더 예리하고 더

25. 칼빈은 “위엿 것(heavenly things)”을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 참 의의 본질 그리고 하늘나라의 비밀들(the pure knowledge of God, the nature of true righteousness and the mysteries of the heavenly kingdom)”로 정의하고 있다. *Inst.* 2:2:13.

26. 칼빈은 “아랫 것(earthly things)”을 “참 정의, 저 세상의 축복의 삶 등의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되지 않은 것, 즉 현세의 삶과 그 한계 내에 국한되어서 그 중요성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those which do not pertain to God or His kingdom, to true justice, or to the blessedness of the future life; but which have their significance and relationship with regard to the present life and are, in a sense, confined within its bound.)”로 정의한다. *Ibid.*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인가? 지상지식에 대한 타락한 이성의 역할에 대하여 더 이상의 깊이 있는 분석은 없는 것인가?

칼빈 자신이 말했듯이 만일 죄가 인간의 전체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었다면, 죄는 인간의 지식의 활동 부분에도 근본적인 의미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야한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 인식의 “위엿 것(천상지식)”뿐만이 아니고, 차원이 다르기는 해도, “아랫 것(지상지식)”까지도 포함한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야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칼빈은 이 세상의 지식을 완전히 무시하고 극히, 이원론적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변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그의 신론적 접근과 비교해 보았을 때, 칼빈은 죄와 타락이 인간의 인식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취약한 면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칼빈은 하나님의 창조물과 하나님 자신 사이의 불가분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환경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면, 인간의 궁극적인 환경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물은 분리되어질 수 없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창조물은 그것의 궁극적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배후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이 계시다는 것을 이해해야한다.<sup>27</sup>

인간의 이 세상 지식도 근본적으로는 그 모든 지식의 궁극적 배후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떠나서는 이해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이해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의 긴밀한 관계 때문에

27. 코넬리우스 반틸은 인간의 환경이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자연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그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분명한 존재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피조물의 존재 목적과 그 깊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자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한다는 것이다. Cornelius Van Til, *Defense of Faith* (Philipsburg: P & R, 1955), p.42.

지상지식에 대한 우리의 지식도 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야한다.

이것에 대한 칼빈의 신학적 근거는 일반은총론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하나님의 일반은총으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이 지상지식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진리는 누구에게서 오든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이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유일한 근원이라고 간주한다면, 우리는 진리 그 자체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든지 경멸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불명예스럽게 하기 때문이다.”<sup>28</sup>

이것이 타락한 이성에 의한 과학의 활동을 인정하는 칼빈의 근본적인 동기가 되는 것이다. 칼빈은 이 세상에 관한 것들에 대한 연구에서 자연인의 예리한 통찰력을 인정한다. 그리고 “비록 타락한 인간이 온전함으로부터 비뚤어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훌륭한 은사들로 옷 입혀져 있고 장식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우리가 하여금 물리학, 논리학, 수학 등과 같은 학문에 있어서 기록하지 않은 사람들의 사역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왜 그 도움을 마다하겠는가.”<sup>29</sup> 헬만 카이퍼 (Herman Kuyper)는 인간의 이성과 지적활동에 대한 칼빈의 강조를 인식하며 이것을 “보편적 일반은총(*general common grace*)”의 영역으로 간주했다. 카이퍼는 칼빈이 “지성의 빛”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신 보편적 일반은총의 가장 명백한 증거로 보고있다고 말한다.<sup>30</sup>

칼빈에 의하면 이와 같은 일반은총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다. 타락 후 여자의 씨를 약속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과 인류의 존재를 보존시켰다고 칼빈은 말한다. 죄로 저주받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야의 약속 때문에 이 우주가 보존

28. *Inst.* 2:2:15.

29. *Inst.* 2:2:16.

30. Herman Kuyper, *Calvin on Common Grace* (Grand Rapids: Eerdmans, n.d.), p.183.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은혜로부터 일 반은총이 기인된 것임을 칼빈은 주장한다.<sup>31</sup> 그러므로 칼빈에 의하면 자연과학의 발달은 크리스찬들의 손에 의하여만 장악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타락 후에도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다고 칼빈은 말한다. 아담에게 돌아갈 심판은 완화되어졌고 별로 주어진 노동의 고통에도 어떤 즐거움이 동시에 주어졌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쫓아 내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지구상에 그를 위하여 집을 마련해 주셨고 비록 죄로 저주받은 세상이기는 하지만 그에게 문화명령을 계속하여 주셨다는 것이다.<sup>32</sup>

#### IV. 인문적 방법의 취약성

인문적 방법에 입각한 칼빈의 인식론은 그의 신론적 방법이 보여 주었던 내용과 비하여 볼 때에 그 과격성이 결여되어있다. 이 점에서 칼빈은 신자와 불신자의 인식론 사이에 깊이 뿌리 박혀있는 차이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있다. 칼빈은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있는 심오한 의미의 차이점에 대하여는 관심이 결여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것은 칼빈이 세속 철학자의 개념을 발취하여 그 사상의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심오한 동기와 의미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의 주석에 활용하는 데에서 나타난다.<sup>33</sup>

31. *Comm. Gen.3:15f, Rom.16:20.*

32. *Comm. Gen. 3:17, 23.*

33. 예를 들면, 칼빈은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있는 “질투”와 “시기”의 구분에 대하여 주석할 때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의 두 번째 책에서 그것들 사이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질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앞설까봐 슬퍼한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의 덕이나 가치가 그를 해롭게 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더 우월해지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시기하는 사람은 남보다 더 잘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다른 사람들의 우수성에 코웃음을 친다. 그러므로 비열하고 야비한 사람이나 시기를 한다고 말하며 질투는 고상하고 영웅적인 마음들을 일컫는다고 그는 말한다 (*Comm. Gal. 5:20*).”

즉, 이것은 질투와 시기의 본질이 완전히 세속 철학에 입각한 지상지식의 문맥 하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러한 지상지식이 천상지식과는 어

칼빈은 천상지식과 지상지식 사이의 불가분의 관계를 깊이있게 다루지 않음으로 인간의 지상지식이 그의 천상지식에 의하여 과격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칼빈이 주장하는 불신자들의 과학에 대한 공헌과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한다. 칼빈의 일반은총론도 정당하며 성경적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상지식이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방향과 상태를 결정짓는다는 점과 천상지식과 지상지식의 불가분의 관계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칼빈은 신자들의 인식과 불신자들의 인식의 근원적 차이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칼빈의 천상지식과 지상지식의 분리 성향과 타락한 이성 에 의한 지상지식의 합리적인 이해에 대한 주장은 타락과 죄의 본질의 과격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칼빈은 이성과 의지가 인간 영혼의 두 가지 근본적인 기능이라고 믿으며 특히 이성은 의지보다 우위를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칼빈의 이러한 생각은 타락 전 뿐만이 아니고 타락 후에도 적용되는 것처럼 보인다. 즉, 이성의 부패와 변질을 말하여도 그것이 의지에 대한 이성의 우월성을 무너뜨리지는 않는 것이다. 칼빈에 의하면 이러한 이성이 지상지식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자연적 본능으로서 여전히 작동한다.<sup>34</sup> 칼빈은 이 시점에서 “과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참

떠한 관계를 맺고있으며 그것과는 어떠한 관계 가운데 이해되어야한다는 조명은 없고, 질투와 시기를 단순히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사람들의 열매로 보아 넘긴다. 칼빈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진술을 빌려서 자신의 설명의 공간을 매워버리고 만다.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칼빈은 성경의 구절을 이해할 때에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 싶으면 세속 철학자들의 사상을 자유롭게 이용한다. “지구는 빈 공간으로부터 바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들은 하나님의 숨겨진 보물이라고 선지자는 말한다. 철학자들도 바람이 왜 지구로부터 나오는가를 발견한다. 그것은 공중의 중심지역에 고정된 질서에 의하여 해가 수증기와 안개 . . . 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Comm. Jer. 10:12-13).” 국가 통치권에 관하여 칼빈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자격이 없다는 원칙을 세우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플라토 역시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 비록 그가 이교도이기에 이런 종류에 대하여 참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도 하나님에 의하여 상당히 준비되지 않았으면 국가를 위한 공직에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의 예리한 지혜는 알게하고 있다 (Comm. Isa. 3:4).”

34. “. . . that the human soul consists of two faculties, understanding and

과학이 될 수 없다”는 그의 이전 말과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신론적 방법에 의하여 파악된 인식론 밑에 깔려있는 과격한 종교적 성격이 인론적 방법에서는 흐려진 것이다.

현대 과학에서도 유사한 예를 찾을 수 있다. 과학이 단지 지상영역의 의미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말한다. 발렌타인 헤프(Valentine Hepp)는 자연과학으로부터 과학 철학을 제거하는 현대 과학의 성향을 비난한다. 자료를 모으고 분류하고 가정을 세우고 이론을 만드는 것들만은 자연과학의 학문활동에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과학철학은 자연과학으로부터 절대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sup>35</sup>

인간 삶의 어떤 영역이나 사상을 포함한 인간의 어떤 활동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은 없다. 그것은 칼빈 자신이 말했듯이 창조론의 과격한 성격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종교적 심령을 심어 주셨다. 이러한 인간의 심령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는 지상지식에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인간을 떠나서도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지상지식에 관한 그의 인론적 인식론의 방법에서 칼빈은 지상지식과 인간 사이의 본유적인 관계에 깊이 있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세상은 그 세상을 보고 인식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벗어나서는 이해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과격한 본질은 지상현실의 바른 지식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그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떠나서는 이해될 수

---

will. Let the office moreover of understanding be to distinguish between objects, as each seems worthy of approval or disapproval; while that of the will to choose and follow what the understanding pronounces good, but to reject and flee what it disapproves.” *Inst.* 1:15-7.

35. Dr. Valentine Hepp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The philosophy of nature makes use of the . . . permanent results of the various branches of sciences. It reaps what the natural science have sown, grinds it and prepares it as necessary food for the hungry human spirit.” Valentine Hepp, *Calvinism and the Philosophy of Nature* (Grand Rapids: Eerdmans, 1930), p. 65.



없는 것처럼, 지상지식도 인간에 대한 지식과 그의 죄의 본성을 떠나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관계없이 그의 창조를 보지 않으신다. 인간 때문에 세상이 함께 타락했고 인간의 구원과 더불어 세상도 구원받을 것이라는 진리가 바로 그 이유인 것이다.<sup>36</sup>

## V. 인문주의 영향

칼빈의 이러한 약점은 그의 인문주의 교육의 배경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퀴리니우스 브린(Quirinius Breen)은 칼빈의 일 반은총 개념이 그의 과거 인문주의, 특히 고전연구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주장한다.<sup>37</sup> 호이카스(Hooykaas)는 칼빈을 과학 분야에서 진적타락을 고수하기에는 너무 준비된 인문주의자로 묘사한다.<sup>38</sup> 그렇다면 우리는 인문주의가 칼빈에게 미친 영향을 보아야 할 것이다. 인간이 지상지식에서 죄의 영향을 받는 주제를 다루는 부분에서 나타난 칼빈의 모순된 모습이 인문주의의 영향으로 말미암은 혼란으로 볼 것인지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우리는 칼빈의 인문주의 영향을 언급할 때에 칼빈이 전혀 관계하지 않은 인문주의의 종류를 제외시켜야 한다. 그것은 르네상스 인문주의이다. 중세 말 “자연”과 “은혜”의 두 영역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실재주의(realism)가 무너지면서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정신은 “은혜” 영역의 부적합성으로 입장을 정리해 나아가고 있었다.<sup>39</sup> 인간이 우주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었고 인간은 자신을 신적인 위치로 상승시키는 분위기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은 이성과 자유를 가진 인간이 자율적 능력에 의하여 지배되어야 하는 영역으로 전락했다.<sup>40</sup> 그리고 코페르니쿠스적 세계관이 이러한 인문주의 정신을

36. Herman Dooyeweerd, *The Secularization of Science* (Memphis: Christian Studies Center, 1954), p.5.

37. Quirinius Breen, *John Calvin: A Study in French Humanism* (Hamden, Conn.: Archon Books, 1968), p.159.

38. Hooykaas, p.117.

39. Reid, p.28.

위한 권위를 세우는 데 도움을 주었다. 칼빈은 이러한 거룩함을 함양시키는 것과 무관한 세속적 인문주의에 의한 지식은 분명히 비판했다.

인문주의 정신에 들어가 있는 “장악”과 “자유”의 두 가지 상충되는 주제 사이의 필연적 투쟁은 칼빈에게는 관건이 아니었고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sup>41</sup> “장악”의 주제는 인간의 자율적 능력을 통한 자연의 지배를 말하는 것이고, “자유”의 주제는 어떤 종류의 권위와 초자연적 권능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이 둘 사이의 투쟁은 세속적 인문주의에서는 논쟁을 일으켰지만 칼빈에게는 전혀 문제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칼빈은 비록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장악하게 되어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가졌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연을 탐구하고 정복해야 한다. 그러나 그 정복의 목적은 인간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세속 인문주의에 의하여 채택된 자율적 인간이성은 자연을 정복하기 위하여 수학을 사용했다. “장악”의 주제는 자연의 보편적 법칙을 통하여 자연을 설명하도록 한 것이다. 즉, 자연의 모든 것들이 자연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장악되도록 하는 것이었다.<sup>42</sup> 그러나 자연과학의 방법을 수용함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그것이 인간의 자율적 권위를 내세우는 것은 반대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요구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칼빈의 정신은 비록 인문주의의 영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세속적 인문주의와는 종류가 다른 것이었다.

칼빈이 영향을 받은 인문주의는 회심 이전에 인문주의자들 사이에 있었던 고전학의 교육과 훈련으로부터 기인한다.<sup>43</sup> 학자로서 그를

40. Dooyeweerd, *Roots of Western Culture*, p.150.

41. *Ibid.*, p.152.

42. *Ibid.*

43. 인문주의는 어떤 사상이라기 보다는 어떤 사상을 받아드리고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한다. 칼빈이 영향을 받은 인문주의도 이렇게 이해해야 하며 이 방법론이 칼빈으로 하여금 개신교 종교개혁 신학자로서의 위치를 확보한 것으

준비시켜 주었던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와 아울러 헬라 철학은 칼빈을 대학자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었다. 칼빈의 최초 저작인 세네카의 데 클레멘티아(De Clementia)의 주석은 그가 스물 세 살 때 출판했던 작품으로 그가 인문주의자로 준비된 배경과 소양을 잘 드러내고 있다.<sup>44</sup> 이 작품에서 칼빈은 벌써 주석가로서의 훈련이 많이 되었음이 보여진다. 그의 문법적, 수사학적 분석과 아울러 역사, 철학, 문학, 과학 등 여러 학문들의 배경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미래 주석가로서의 탁월한 면모가 엿보이는 것이었다. 특히 그는 창의적 합성을 통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었다. 회심 후에 칼빈은 그의 고전학문의 배경을 저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하여 유효 적절하게 변형시켰다.<sup>45</sup>

특히 인문주의 훈련으로 말미암아 칼빈은 “명쾌한 간결성(lucid brevity)”과 “조정이론(accommodation theory)”의 주석법을 남길 수

---

로 이해해야 한다. “In short: humanism was concerned with *how ideas were obtained and expressed*, rather than with the precise nature of the ideas themselves. A humanist might be a Platonist or an Aristotelian - but in both cases, the ideas involved derived from antiquity. a humanist might be a sceptic or believer - but both attitudes could be defended from antiquity. The diversity of ideas which is so characteristic of Renaissance humanism is based upon a general consensus concerning *how those ideas are to be derived and expressed*.” Alistair McGrath, *A Life of John Calvin: A Study in the Shaping of Western Culture* (Oxford: Blackwell Publishers, 1990), p.54.

44. “The commentaries on Seneca were in a way the culmination of Calvin’s youthful humanism. In them he has gathered up the results of his early training . . . these commentaries form a link with his work as a reformer, for though the Institutes breath a different spirit and set forth a different system of thought, they betray sympathies that had not been there were it not for the author’s one time indulgence in the Stoic philosophy.” Breen, p.67.

45. Ford Lewis Battles, *Interpreting John Calvin* (Grand Rapids: Baker Books, 1996), pp.84-85. “After his conversion, all of Calvin’s classical learning was transmuted. In a sense he exchanged for human rhetoric a divine rhetoric (Inst. 1.8.1f). He saw the task of the theologian no longer as speculative, primarily philosophical, but rather as pastoral, pedagogical (Inst.1.14.4) and making large if guarded use of the rhetorical discipline.” Ibid., pp.117-118.

있었다.<sup>46</sup> 칼빈은 이 방법론을 다른 문헌에서와 같이 성경의 주석에도 적용했다. 칼빈은 당시의 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적 진리를 성경을 통하여 탐구할 뿐만 아니고, 성경의 교리들이 성경 기록 당시의 독자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연구했다.<sup>47</sup> 문자주의자들과는 달리 칼빈은 성경과 과학 사이에는 아무런 충돌이 없음을 주장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수학적이고 물리학적인 내용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모세는 당시의 일반 사람들의 이해의 수준에 자신을 조정했다고 칼빈은 주장했다. 아울러 그의 성경 주석에 나타난 칼빈의 인문주의 영향은 일반상식과 독립적인 판단에 도달하는 그의 마음의 상태에서도 잘 읽을 수 있다. 이런 그의 자연스러운 해석법은 매우 혁명적인 것이었다.<sup>48</sup>

칼빈은 또한 논리학에 잘 훈련되었다. 성경본문의 해석에 있어서 서로 상충되어 보이는 구절들이 그에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칼빈은 은유와 비유의 방법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했다. 실로 칼빈에게 인문주의 훈련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칼빈이 건립한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은 전문 사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필

---

46. 조정이론은 칼빈이 처음 사용한 것이 아니다. 고대 교부들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모습을 인간의 마음과 능력에 맞추도록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이교도들과 이단자들에 의한 성경 비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오리겐, 어거스틴, 크리소스톰 등에 의하여 사용되었다. 그러나 칼빈은 이 조정원칙을 성경 해석과 이해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 관계의 모든 면을 이해하기 위한 지속적인 근거로 사용했다. "Thus the starkest inconsistencies in Scripture are harmonized through rhetorical analysis, within the frame of divine accommodation, to human capacity; but more than merely serving as an apologetical device, this method unlocks for Calvin God's beneficent tutelage and pedagogy of his wayward children." *Ibid.*, 118.

47. 성경주석에 사용된 조정이론은 칼빈의 인문주의 방법론을 잘 보여준다. 칼빈은 선생이 학생을 가르치기 위하여는 학생의 수준을 잘 파악하여 가르침으로 그가 잘 따라오도록 해야한다고 말한다. 또한 그 학생이 속해있는 역사적 상황과 시기를 잘 파악하여 그가 꼭 필요한 것으로 가르쳐 주어야한다고 칼빈은 말했다. 이것은 모두 효과적인 의사전달을 위한 인문주의의 방법론으로 단순한 중세철학적 방법인 정중의 수준을 무시한 전문용어의 사용등을 배제하는 것이다. William J. Bouwsma, *John Calvin: A Sixteenth Century Portrait*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p.116.

48. *Ibid.*, pp.147-148.

수적으로 이러한 인문주의 내용의 기틀을 갖추 것을 강조했다.<sup>49</sup>

우리는 칼빈이 세속 철학자의 기술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유를 볼 수 있었다. 그의 인문주의 훈련의 배경이 이유이다. 그리고 이것은 칼빈으로 하여금 지상지식에 관한 세속적 이해의 합리성과 건전성을 주장할 수 있도록 했다.<sup>50</sup> 이러한 인문주의 배경이 칼빈을 종교개혁의 개신교 대학자로서의 업적을 쌓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칼빈으로 하여금 세속 지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죄의 깊은 영향에 대한 탐구를 어렵게 만든 것으로 보여진다. 오히려 그것은 칼빈으로 하여금 일반은총의 명목 하에 긍정적인 측면이 더 부각되도록 한 것이다.

## VI. 결 론

인식론의 신론적 접근에서 칼빈은 성경적인 하나님 주권 사상을 잘 적용했다. 칼빈의 성경적 창조론은 중세 스콜라주의의 자연과 은혜의 이층구조를 탈피했다. 자연의 영역이 은혜의 영역으로부터 분리되어 자연영역은 인간의 이성만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중세구조에 도전했던 것이다. 칼빈의 주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주의 어떤 영역도 그리고 인간 인식의 어떤 영역도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밖에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칼빈

49. Breen은 이 원칙을 이렇게 소개한다. "Even though you be a preacher, be first a humanist, express his thought on the matter." *Ibid.*, 154.

50. "One could cite numerous instances of this persistence of humanist tendencies. Whatever has since been said of it, Calvin retained the notion of natural law that he had acquired from the Stoics, and did no more than accommodate it to Christian principles. Though he defended himself, with good reason, against those who accused him of having brought the Stoic notion of fate into his doctrine of predestination, we have been able to discover a whole series of passages, even in the Institutes, which are manifestly inspired by texts of Erasmus. His conversion no doubt lowered the ancient authors in the hierarchy of values he admired, to the advantage of the Scripture; but it did not cause him to condemn without reservation. In his commentaries and dogmatic treatises continued to quote them abundantly, and with a mastery that betokens long familiarity." Francois Wendel, *Calvin: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New York: Harper & Row, 1963), pp.33-34.

은 이러한 인식론의 구조를 세우며 개신교를 위하여 중요한 틀을 세워 놓았다.

그러나 칼빈은 인식론의 인문적 접근에서 신자와 불신자 사이의 인식의 차이점을 심도있게 드러내지 못하는 약점을 드러냈다. 인간 지식의 영역을 지상지식과 천상지식으로 구분한 칼빈은 지상지식에 있어서 그의 인식론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에 한계점을 드러낸 것이다. 지상지식을 습득하는데 초자연적 은사를 상실하고 그것을 전혀 회복하지 못한 불신자의 인식과 초자연적 은사를 상실했으나 회심으로 회복의 단계에 들어선 신자들 사이의 차이점을 심도있게 다루지 않은 것이다. 칼빈은 모든 진리가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성령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고수하며 자신의 입장을 일반은총론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칼빈에게는 인문주의의 영향이 많이 있었다. 그가 받은 탁월한 인문문주의 교육은 그의 성경의 해석과 이해를 위하여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리고 칼빈은 이러한 공헌을 한 세속 학문의 진리성을 배격할 수 없었다. 과거 철학자들과 현인들의 가르침과 학문의 업적에 대하여 칼빈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었던 것이다. 칼빈은 일반은총론으로 이것을 뒷받침했다. 즉, 칼빈은 타락으로 말미암은 인식론에 대한 죄의 영향의 문제를 일반은총으로 보완시킨 것이다.

불신자도 진리를 말할 수 있으며, 신자도 불신자로부터 배울 수 있는 영역과 내용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상지식과 천상지식과의 불가분의 관계를 인식해야한다. 비록 지상지식 가운데 천상지식의 유무에 상관없이 외적으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인간의 인식론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이해할 때에는 인간의 지상지식은 천상지식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한다. 그리고 모든 지상지식 내에 있는 동기와 전제들을 살피며 그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피야한다. 칼빈은 이 부분이 취약했던 것이다. 여기서 칼빈 인식론의 신론적 접근과 인문적 접근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이다.